

[브라질WC D-30]②'런던 to 브라질'...두 번째 기적 준비하는 홍명보 감독

등록 2014.05.12 08:40:51 | 수정 2016.12.28 12:44:28



【파주=뉴시스】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45)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DB) 2014.5.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축구대표팀 홍명보호(號)가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 진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브라질을 향해 돛을 올렸다.

8일 브라질월드컵 대비 국가대표 최종엔트리를 확정 발표한 홍명보(45) 국가대표팀 감독은 12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첫 소집훈련을 시작으로 본격 월드컵 체제에 돌입한다.

지난해 7월 최강희(55) 전임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바통을 물려받은 홍 감독은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이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2010남아공월드컵 당시 허정무 감독이 세웠던 첫 원정 16강 넘어 한국 축구사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홍 감독의 A대표팀 감독직 수락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빨리 이뤄졌다. 2015아시안컵부터 A대표팀 감독을 맡아 2018

러시아월드컵을 이끈다는 기존 청사진보다 일찍 승부수를 던졌다.

욕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브라질월드컵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선수 시절부터 이어온 성공 이미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홍 감독은 1년 미만의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대표팀 색깔을 확 바꿨다. 2010남아공월드컵 이후 조광래(60) 전임 감독과 최강희 감독을 거치는 동안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았다.

늘 그랬듯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끝을 기다리고 있다.

대표팀 감독 데뷔전이었던 동아시아컵에서 2무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홍 감독은 이후 14경기 동안 5승3무6패를 거뒀다. 절반의 승률에서 조금 모자라지만 누구도 예측 못했던 런던올림픽 때처럼 브라질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심은 '홍명보의 아이들'이다. 지난해 동아시아컵을 시작으로 거듭된 테스트 끝에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함께 일군 멤버(12명)를 중심으로 23명의 브라질월드컵 최종엔트리를 꾸렸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멤버를 기용하는 안정을 택했다.

통상 대표팀을 부를 때 '히딩크 호', '허정무호' 등, 감독의 이름을 따서 표현하지만 이번 '홍명보 호'만큼 호칭이 잘 어울린 적은 없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배가 난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장의 모습을 보여 줬다. 홍명보 감독 특유의 리더십이 어김없이 빛을 발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팀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원 팀(Team)·원 골(Goal)·원 스피릿(Spirit)'이라는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독심으로 밀어 붙였다. '홍명보의 의리'는 계속 됐다. 최종엔트리 발표과정에서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신뢰를 먼저 보내고 반대급부로 결속력을 챙겼다.

런던올림픽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논란 속에서도 박주영(29·왓포드)을 발탁했다. 박주호(27·마인츠)를 떨구는 대신 윤석영(24·퀸즈파크레인저스)을 품었다. 이명주(24·포항)의 낙마와 박종우(25·광저우 부리)의 승선도 마찬가지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닌 홍 감독은 결정적인 순간에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는 향후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주저없는 결정으로 산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추스렸다.

홍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항상 주장 역할을 맡았다.

1990년 한국 축구에서 수비수의 장을 새로 연 그는 2000년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 최초의 외국인 주장 완장도 찼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도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다. '영원한 리베로'라는 별명도 얻었다.

1992년에는 포항스틸러스의 K리그 우승에 기여하며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수비수 출신 MVP를 수상했다. 1995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로 뽑혔다. 또 2002년 월드컵 브론즈볼을 수상하는 등 선수 생활 내내 정상에서 있었다.

홍 감독은 12년 간의 국가대표 시절 '영원한 리베로'의 영광에 이어 지도자 타이틀을 달고도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성

과를 내왔다.

선수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수비수로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라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지도자로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내는 등 한국 축구의 영광과 늘 함께 해왔다.

선수로서 현역 은퇴 뒤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착실히 지도자 수업을 받았다.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 딕 아드보카트(65) 감독 밑에서 코치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수석코치를 맡았다.

2009년에는 이집트U-20월드컵 사령탑에 올라 한국을 8강에 올려놓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안게임에서는 동메달을 일궜다. 런던올림픽에서 첫 동메달을 거머쥐며 지도자 생활에 정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중책을 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승승장구하며 보란듯이 성공 신화를 남겼다. '영원한 리베로'에서 '영원한 리더'로 우뚝 섰다.

2년 전 런던에서 신화를 남긴 홍 감독은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새 역사에 도전한다. 기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홍 감독이 '런던 미러클'에 이어 '브라질 미러클'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yusta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